

4~5》 데이터뉴스 – 학교주변 범죄현황



7》 큰 배움터 '대학', 인생의 서재



2016학년도 1학기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개강일 : 2016.03.02(수)
일정 : 2016.03.02(수) 10:30 ~ 2016.03.08(화) 18:00
수강신청학점 철회 : 2016.03.16(수) 10:30 ~ 2016.03.22(화) 18:00



'새내기의 힘찬 발걸음'
나도 이제 대학생

2016학년도 신입생들이 입학식이 열리는 평화의 전당으로 향하고 있다. 입학식은 단과대학 자체행사를 거쳐 26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가량 진행됐다. 입학식에서는 환영사·교양과정 소개·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사진=최병현 기자)

Newsmaker

체육대학 내부 변화의 목소리
김태우(체육학 2015)



"행사 예·결산안 공개 60년 체대 역사에서 큰 전환점"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 지난 2월 14일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체육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비의 높은 가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과 시간표 공유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게시판과 같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체육대학 오토비와 관련해 부당함을 고발하는 익명의 글이 줄을 이으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용기 있게 체육대학 내부에서부터 '변화의 목소리'를 주장하고 나선 학생이 있다. 우리 신문은 최근 온라인에서 주목 받고 있는 김태우(체육학 2015) 군을 만났다.

수된 상황이다. 체육대학 학생회 측은 거래업체의 정확한 정보를 몰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업체 측 사람의 말만 믿고 정확한 정보도 묻지 않은 채 구두로 계약한 신 회장의 행동은 문제가 될만하다"라고 지적했다.

"학과 행사할 때마다 학생회
비 결산내용을 학생들에게 공
개적으로 게시하는 회칙 반드
시 신설해야"

김 군은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오

티를 비롯한 체육대학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예산과 결산을 요구했다. 김 군의 이 같은 요구에 체육대학 학생회 측은 '지난 3년간 행사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토비 포함한 행사의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 군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지 않았던 장부 공개를 이제부터라도 하겠다는 것은 체육대학 역사상 큰 전환점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아직 구두 약속만 있었고 명시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면서 여전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군은 "행사 시마다 예·결산 내역을 표·통장 스캔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회칙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 군의 용기 있는 행동이 체육대학 변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 3월 공식 출범

21세기 대학혁신 위원회

권윤지 기자 happitice2@khu.ac.kr

'미래대학리포트'를 통해 수렴된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고, 대학의 효율적인 행·재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직된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혁신위)가 3월 공식 출범한다. 2월 19일 평화복지대학원에서 열린 2016학년도 1학기 학동교무위원 연찬회에서 '혁신위'에 대해 브리핑한 유정완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학장은 "처음엔 경희 미래대학리포트 2단계 사업이라고 부르다가 대학의 문화, 인식, 구조 등을 바꿔나가는 차원에서 '혁신'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개교 70주년인 2019년에 아

미래대학리포트 후속 사업에서 확대·구성

교육·실천 위원회, 학술·진흥위원회 축

위원회에 5명의 학생위원 배정, 참여 가능

완성된 사업 바로 집행하는 실행위원회도

'독립연구', '사회진출', '평가지표' 주요 과제로

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권 대학으로 진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내년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혁신위는 총장 산하에 '교육·실천혁신위원회', '학술·진흥위원회' 등의 양 위원회와 '실행위원회', '기획위원회', '행·재정혁신지원

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무총장은 총장을 보좌해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한다. 현재 서울캠퍼스 후마 학장이기도 한 유정완(영어학부) 교수가 사무총장을 맡았다.

교육·실천혁신위원회에서 비중 있게 추진하는 일은 '종합적 사회 진출 프로그램 창출'과 '독립연구'

다. '종합적 사회진출 프로그램'은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진출했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획력과 현장 경험을 기르게 하는 '실전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우기동 교육·실천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존의 취업 방식을 넘어서 NGO, NPO, 국제기구 종사, 귀농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알려주고, 실제로 그 삶을 구상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독립연구나 사회봉사 과목처럼 학점과 연관된 형태, 그리고 학점과 관계없이 지구사회봉사단에서 교수-학생 간의 펠로우십 형태로 진행하는 등 크게 두 가지 모델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대도시의 삶과 인문적 가치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⑨

임옥희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인터넷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인터넷은 사라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장차 인터넷이 완전히 일상화되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라는 뜻이었다. 인터넷처럼 대도시 또한 이제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환경이 되었다. 대도시 이외의 삶을 상

상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대도시는 자연발생인 것이라기보다 삶을 개선하려는 사람

계오르그 짐 멜은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전형적인 심리상태를 신경과 민으로 분석한다

들의 욕망에 따라 개발된 것이었다. 비대한 도시의 출현은 산업자본주의 이후 산업인구의 도시집중과 무관하지 않았다.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제주도 출신인 서연이 그처럼 편입하고 싶었던 강남은 한때 진흙이 신발창에 찍찍 달라붙던 논밭이었다.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대도시 서울은 변두리 농촌지역을 계속 삼켜나가면서 비대해졌다.

일단 만들어진 대도시는 그곳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희노애락의 기억을 말끔히 지우고 유혹적인 소비 공간이 된다. 박태원의 <천변풍경

>>이 보여주다시피, 1930년대 청계천에는 빨래하던 여인들이 두드리던 방망이 소리와 한숨소리가 흘러갔다. 1970년대 청계천변의 벌집 같은 공장에서는 청계괴복노동자들이 돌리던 고달픈 미싱소리가 밤낮으로 흘러나왔다. 2005년 도심의 휴식공간으로 되돌아온 지금의 청계천변에서는 옛사람들의 소멸과 더불어 과거의 기억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사령

면

〈편집장〉 백승철(정치외교학 2011)

명

〈편집장〉

이시은(컴퓨터공학 2011)

유정아(국어국문학 2014)

〈뉴스팀장〉

김유림(아동가족학 2014)

김도엽(정치외교학 2012)

기호웅(의류디자인학 2012)

이성민(프랑스어학 2015)

김수진(한국어학 2014)

〈영상팀장〉

양윤혁(한국어학 2015)

이정민(스페인어학 2014)

〈파트장〉

김규래(경영학 2012)

최병현(경영학 2015)

정혜빈(원예생명공학 2015)

강규연(의류디자인학 2014)